

가을전어 풍어…올핸 맘껏 먹겠네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사막으로 바뀌어 가는 전남 서남해안 ▶7

kwangju.co.kr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대진표 ▶14

제19558호 1판 2013년 8월 23일 금요일 (음력 7월 17일)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 여부 주목

(현행 10km서 30km로)

환경단체·영광주민 요구

원자력위 용역결과 곧 발표

“효과 없고 이미지 나빠져”

전남도·일부 지자체 반대

■ 영광 한빛원전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정부가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비상계획구역을 현재 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주민 대피 등 모든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30km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남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의뢰한 국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연구 용역을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용역은 “한국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작됐다. 특히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최근 전국을 돌며 한국의 비상계획구역이 미국(80km), 평가리(최대 300km), 독일(25km) 등에 비해 턱없이 짧아 30km까지 늘려달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용역에는 국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방사능 사고 우려가 있을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작품 ‘랑창랑창’
전시관에 처음 설치된 작품 ‘랑창랑창’에서 제작에 참여한 담양 대나무 장인 황인진(오른쪽)씨와 이승준
씨가 조형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일본 작가 구마겐코씨가 설계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판문점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北, 정부 제안 동의…금강산 관광 회담은 내달초 회망

북한은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추석(9·19)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접십자 접촉이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이뤄지게 됐다. <관련기사 5면>

북한이 이산상봉 접촉에 최종 동의함에 따라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23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북한은 또 우리 측이 다음달 25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 “금강산 관광은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면서 8월말~9월초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에 동의한 만큼 이날 중으로 회담 대표단의 명단을 상호 교환할 방침이다.

또 금강산 관광 회담에 관한 북측의 수정 제안과 관련, 내부 검토를 거쳐 우리 정부 입장장을 정한 뒤에 북측에 회신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가급적 많은 인원이 조속하게 상봉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방안을 차단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내

일 실무접촉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산가족과 금강산은 선호개념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접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상봉 장소가 결정되겠지만 금강산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도 이산상봉을 계기로 한 시범 관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우리측의 ‘23일 접십자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는 한편 하루 앞선 22일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별도의 회담을 금강산에서 갖고자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형

배기운 의원은 집유 2년 당선무효형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서 벌금 50만원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낮아 돌발변수가 없는 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대법원은 “당내 경선운동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이 누락됐다”며 광주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모바일 경선 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사건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이 동장 도입에 참석

해 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도(45)씨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배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는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운현석기자 chadol@

김윤석 사무총장·6급 직원 구속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수사…법원 영장 발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윤석(60) 사무총장과 6급 직원인 한모(여·44)씨를 21일 밤늦게 구속했다. <관련기사 6면>

이들은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 사실을 확인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총장 등 핵심 당시자 2명을 구속한 상태에서 최대 20일까지 주어지는 기소시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 062)226-0001

Mercedes-Benz

2013 제2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Gwangju & Jeollanam-do Youth Festival 2013

2013. 8. 31(토) 오전 10시

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 중·고교생 댄스·밴드·풍물 등 각종 경연
- 대학 선택을 위한 입시홍보관 / 진로적성 상담관 운영
- 4대악 척결 UCC공모전 및 다양한 부대행사
- 유학 / 화상영어 설명회
- 대학 인기동아리 밴드·댄스 공연
- 광주FC 선수단 팬사인회 및 경품이벤트

| 주 최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광주일보사

| 후 원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광주FC · KDB산업은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4대악 없는 밤은 아니었고!
함께 만들자 신나는 학교!!

경연대회 안내

| 경연분야 | 밴드 경연, 댄스 경연, 풍물 경연
4대악 척결 UCC공모전
수기발표 토론회, 3:3 길거리농구대회

| 문 의 | 062. 220. 0555 / 010. 5020. 5008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및
총 상금 1,000만원 상당 수여